

다자이 오사무의 『판도라의 상자』 考

- 패전과 성서의 의미를 중심으로 -

전 수 미*

目 次

1. 서론
 2. 패전과 '희망'의 메시지
 3. 성서와 자유사상
 4. 결론
-

1. 서론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이하 '다자이'라 함)의 『판도라의 상자(『バンドラの匣』)』는, 1945년 10월 22일부터 1946년 1월 7일에 걸쳐 센다이(仙台)신문인 『카와키타 신보(河北新報)』에 64회 연재되었다.

이 작품은 다자이가 패전 직전에 폭격을 맞은 토오쿄의 戦災로 인해 피난지인 고향 츠가루(津軽)의 카나기(金木)로 와서 귀농자 생활을 하며 집필한 패전 후(1945)의 첫 작품이며, 패전이란 긴박한 시국에 유일하게 완결시킨 신문연재 소설이다.

이 해 11월 23일 이부세(井伏鱒二)에게 보낸 서간에 '신문소설을 시작해 보니 생각 외로 재미없어서 120회 약속이었지만, 60회로 끝낼 생각'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국은 다자이에게도 힘겨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머리말에 '이 소설은 '건강도장(健康道場)'이라 부르는 어느 요양소에서

* 한국외국어대학 강사

1) 新聞小説はじめてみたら、思ひのほか面白く無く、百二十回の約束でしたが、六十回でやめるつもり (『全集十一巻』、p289)

투병하고 있는 스무 살 청년이 그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되어 있다²⁾고 하듯이, 다자이의 애독자이며 문학청년이었고 폐병으로 요절한 키무라(木村庄助)의 병상일기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이에 대해선 1943년 7월 11일 키무라(木村重太郎)에게 보내는 서간에, ‘일기는 확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고 고인의 뜻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³⁾’라고 언급했듯이, 요절한 고인에 대한 의무감을 지킨 작품이니만큼 아름답게 집필하고자 했음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1943년에 키무라의 병상일기를 받았으나, 『판도라의 상자』는 2년 뒤인 1945년에 발표 연재되었다. 이유가 있다. 이 작품은 1943년에 ‘종다리의 목소리(雲雀の声)’라는 제목으로 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품검열로 지연되고 있던 중 戰災로 인하여 원본이 전소했다. 교정본과 원본의 확인은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그 교정본을 바탕으로 2년이라는 시기를 넘겨서 다시 집필하여 발표되었고, 작품에 패전직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작의 수정 보완은 당연하며, 원작과는 다른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츠카코시(塚越和夫)는 ‘천황을 향한 절대적인 숭배의 생각을 빼기만 한다면’ ‘안전하고 무해한 주니어를 위한 작품, 사랑과 극기와 희망이 가벼운 터치로 이야기되고 있는 극히 위생적인 명랑청춘소설⁴⁾’이라고 평했고, 오쿠노(奥野健男)는, ‘오히려 소년보다 성인 독자를 겨냥해 마음속에 있는 청춘의 순수함을 나타내는 의도로 쓴 의식적 야심적인 순문학 작품⁵⁾’이라는 플러스적 평가를 하고 있다.

츠카코시의 ‘천황을 향한 절대적인 숭배의 생각’이라는 평이 나온 이유는, 이 작품에서 ‘천황’에 대해 존귀하고 조심스럽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천황’의 언급은, 오랜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패전이라는 결과와 패전에 따르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정치성향에 대한 다자이의 질타와 반감 등을 고려할 때, 다자이 문학의 중기와 말기의 분기점에서 추구되었던 자유사상을 드러내기 위해 그 매개가 된 것이다. 또한 이 ‘자유사상’에 ‘천황’ 외에 등장하는 것이 바쇼의

2) この小説は「健康道場」と称する或る療養所で病ひと戦つてゐる二十歳の男の子から、その親友に宛てた手紙の形式になつてゐる。(『全集八巻』、p4)

3) 日記はたしかに大事にお預り申上げます。ゆつくり拝読して故人の御遺志に添ひたいと存じて居ります。(『全集十一巻』、p252)

4) ‘天皇への絶対的な崇拜の念を取り除きさえすれば’, ‘安全無害なジュニア向きの作品。愛と克己と希望とが軽いタッチで語られてゐるきわめて衛生的な明朗青春小説’

(塚越和夫「バンドラの匣」、東郷克美・渡部芳紀、『作品論 太宰治』、双文社出版、1979、p286)

5) ‘むしろ少年より大人の読者に対して心の中にある青春の純粹さをつきつける意図で書かれた、意識的、野心的な純文学作品’(奥野健男、解説「バンドラの匣」、新潮文庫、1973、p336)

<카루미>다.

이상을 살펴보면 「판도라의 상자」는, 키무라의 일기와 관련하여 ‘건강도장’이라는 모델과 실존인물인 작중인물들이 편지 형식으로 어우러진 작품해석상의 중요한 점 등이 실증되었다. 또한 패전이란 역사적 대전환을 나타내는 다자이의 의식도 연구되었으며, ‘천황 폐하 만세’와 ‘카루미’에 대해서도 연구 발표되어 왔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유사상의 중심에는 ‘성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폐병으로 투병하는 고인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희망’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준 내용임을 잘 알 수 있듯이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패전 속의 ‘희망’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그 ‘희망’의 메시지 속에 그려지고 있는 다자이의 천황관과 <카루미>의 자유사상에 성구를 인용한 점에 착안하여 ‘성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문은 『太宰治全集』6(이하 ‘全集’으로 함)을 따른다.

2. 패전과 ‘희망’의 메시지

『판도라의 상자』는 1945년 8월 25일부터 12월 9일 날짜의 13통의 편지를 친구에게 보내는 서간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무 살인 나(히바리)는 폐병을 앓아 ‘건강도장’이라는 요양원에서 5개월간 폐병과 투병하면서 요양생활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등을 전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작품에 나타내고자 하는 작품의 제목과 함께 작가의 의도가 첫 번째 편지에 나타냄으로써 이 편지는 시작된다.

자네, 오해해서는 안 되네. 난 결코 절망 끝의 허무함 같은 게 된 것은 아니라네. 배의 출범은 그것이 어떤 성질의 출범이라도, 반드시 뭔가의 어렴풋한 기대를 느끼게 한다네. 그것은 오랜 옛날부터 변함없는 인간성의 하나이지. 자네는 그리스신화인 판도라의 상자란 이야기를 알지. 열어선 안 될 상자를 열었을 뿐인데, 병고 비에 질투 가난 시의 음험 기아 증오 등, 모든 불길한 벌레가 기어 나와서, 하늘을 덮어 뽕뽕 날아다닌 그 이래, 인간은 영원토록 불행하게 몸부림치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상자 구석에는 겨자씨알 만한 조그맣게 빛나는 돌이 남아 있어서 그 돌에 희미하게 「희망」이란 글씨가 쓰여 있다는 이야기.

君、誤解してはいけない。僕は決して、絶望の末の虚無みたいなものになつてゐるわけで

6) 『太宰治全集 筑摩全集類聚』、筑摩書房、1986.

はない。船の出帆は、それはどんな性質な出帆であつても、必ず何かしらの幽かな期待を感じさせるものだ。それは大昔から変りのない人間性の一つだ。君はギリシャ神話のパンドラの匣といふ物語をご存じだらう。あけてはならぬ匣をあけたばかりに、病苦、悲哀、嫉妬、貪慾、猜疑、陰険、飢餓、憎悪など、あらゆる不吉の虫が這い出し、空を覆つてぶんぶん飛び廻り、それ以来、人間は永遠に不幸に悶えなければならなくなつたが、しかし、その匣の隅に、けし粒ほどの小さい光る石が残つてゐて、その石に幽かに「希望」といふ字が書かれてゐたといふ話。(『全集八巻』、pp6-7)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의 ‘비에, 가난, 증오’ 등등의 모습은, 패전직후의 일본의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열어서는 안 된다는 신의 말을 거역한 우리 인류는 고뇌와 절망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상자’ 속에 남아있는 아주 작은 단단하고 견고한 빛나는 돌덩이인 ‘희망’은 남아있기에 우리 인류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랜 옛날부터 변함없는 인간성의 하나’라고 한다.

‘한 줄기 희망이라는 끈을 더듬어 찾아가는’⁷⁾ 인간의 고난은 희망과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풍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빛을 찾아 거역과 반란 없이 ‘하늘의 해도를 따라 고분고분하게 나아가고’⁸⁾ 있는 순종의 향해를 시작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들의 신시대라는 배는 한발 앞서서 술술 나아간다. 그 어떤 막힘도 없다. 그것은 마치 식물의 넝쿨이 뻗어가는 것처럼 의식을 초월한 천연의 향일성을 닮았지.

僕たちの新時代の船は、一足おさきにするすると進んで行く。何の渋滞も無いのだ。それはまるで植物の蔓が延びるみたいに、意識を超越した天然の向日性に似てゐる。

(『全集八巻』、p7)

주인공 히바리는 자신의 폐병을 악화시켜서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겠다는 ‘타락사상’(‘墮落思想’,p11)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사상을 버리고, 죽음의 현실에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요양원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구시대의 의식은 없다. 따라서 신시대의 향해는 ‘의식을 초월한 천연의 향일성(向日性)을 닮은 햇별을 향해 뻗어가는 순수한 넝쿨처럼 미지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타락사상’인 의도적인 죽음으로부터 의식을 초월한 지극히 자연적인 순리의 삶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 一縷の希望の糸を手さぐりで捜し当ててゐるものだ。(『全集八巻』、p7)

8) 天に潮路のまにまに素直に進んでゐるといふ具合ひなのだ。(『全集八巻』、p7)

또한 이러한 부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의 세계로의 분리는, 패전을 알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루어졌으며, 비로소 ‘희망’을 가지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불가사의한 빛이 몸으로 들어와서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혹은 어쩐지 흔들흔들 큰 배라도 타게 된 듯한 느낌으로 문득 정신 차리고 보니 이젠 옛날의 나는 없었네. -(中略)- 배는 술술 안벽에서 멀어져갔지. 그리고 배의 출발에는 반드시 뭔가의 희미한 희망이 있을 것일세. 난 이제 기 죽지 않네. -(中略)- 난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이 배에 몸을 맡기고 갈 생각이네.

不思議な光がからだに射し込み、まるで違ふ世界に足を踏み入れたやうな、或ひは何だかゆらゆら大きい船にでも乗せられたやうな感じで、ふと気がついてみるともう、昔の僕ではなかつた。-(中略)-船は、するする岸壁から離れたのだ。そして船の出帆には、必ず何かしらの幽かな希望がある筈だ。僕はもう、しょげてはゐない。-(中略)-僕はいまは何も思はず、ただこの船に身をゆだねて行くつもりだ。(『全集八巻』、p12)

패전의 소식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갔고 새로이 출발하는 배에 몸을 맡기고 가냘프고 작지만, 강한 ‘희망’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그리스 신화인 ‘판도라의 상자’에서 주는 메시지와처럼 ‘희망’을 가지겠다는 마음가짐의 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을 살펴보면, 『판도라의 상자』는, 구시대와 신시대의 분리, 부자연의 삶과 자연적인 순리의 삶의 지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패전 직후 일본의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품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3. 성서와 자유사상

‘희망’의 의지를 가지게 된 히바리는, 첫 번째 편지에 요양원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 말한다. 이 부분은 성구는 아니지만 성서와 관련된 의미의 문구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내가 이 건강도장에 들어온 것에는 그러니까 아무 이유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고 싶네. 어느 날 어느 때, 성령이 가슴에 가만히 들어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리고 혼자서 평평 울고 있는 사이에 쭈욱 몸이 가벼워지고 두뇌가 쉼없이 투명해진 느낌으로 그때부터 나는, 다른 남자가 되었다네. 그때까지 감추고 있었지만, 난 바로 ‘각혈 했어’라고 어머니에게 말하고 아버지 낳 위해 산중턱에 있는 건강도장을 택해 주었어. 정말로 뭐 그뿐이라네.

僕がこの健康道場にはひつたのには、だから何も理由なんか無いと言ひたい。或る日、或る時、聖霊が胸に忍び込み、涙が頬を洗ひ流れて、さしてひとりずるふん泣いて、そのうち、すつとからだか軽くなり、頭脳が涼しく透明になつた感じで、その時から僕は、ちがふ男になつたのだ。それまで隠してゐたのだが、僕はすぐに、「咯血した。」とお母さんに言つて、お父さんは、僕のためにこの山腹の健康道場を選んでくれた。本当にもう、それだけの事だ。(『全集八巻』、p6)

여기서 말하는 ‘어느 날 어느 때’란, 패전을 알리는 천황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이며, 이 순간에 성령이 가슴에 들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에 의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투명’해지면서 ‘다른 남자가 되었다’고 새로운 ‘나’를 느끼게 된다. 2 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패전 소식을 기점으로 구시대와 죽음의 ‘나’, 신시대와 삶의 ‘나’가 확연히 분리되는 순간이다. 그리고 비로소 새로운 남자가 되었음을 고백한다.

난 새로운 남자가 되었던 걸세. 자기혐오나 회한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내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라네. 좋은 일이라 생각하네. 내게는 지금 새로운 남자로서의 상쾌한 자부심이 있어.

僕は、あたらしい男になつてゐたのだ。自己嫌悪や、悔恨を感じないのは、いまでは僕にとつて大きな喜びである。よい事だと思つてゐる。僕には、いま、あたらしい男としての爽やかな自負があるのだ。(『全集八巻』、p31)

항상 자기혐오나 회한을 느껴온 과거의 히바리는 그러한 과거의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현재의 히바리로 탄생하게 된다. 과거의 히바리는 다자이의 상징적 수식어인 파멸형이나 하강지향형이라는 다자이의 표면적 천성적 모습 그 자체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고, ‘새로운 남자’의 히바리는 그가 지닌 현실과는 다른 ‘생에 대한 진취적인 상승지향’⁹⁾의 이면적 잠재적 모습을 겉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암울한 과거의 고백과 동시에 백팔십도 반전한 현재의 ‘새로운 남자’를 수용한 자신의 인간사의 아이덴티티의 명확한 분리는 이후 죽음에 대해서도 초연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남자’가 된 히바리는 요양원에서 죽음을 바라보게 된다. 당시 거의 불치병인 폐병환자들이 요양하고 있는 이곳에서 죽음을 목격하게 될 것은 당연하다. 그는 결국 죽음을 맞이한 요양원 사람을 떠나보내며 생과 사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당시의 다자이는 카나기에서 그의 누이가 운명을 달리한 것을 실제 곁에서 보았기 때문에¹⁰⁾ 죽은 자를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남달리 착잡하고 두려움도

9) ‘性に対する前向きの上昇志向’ (渡部芳紀, 「バンドラの匣を中心に」)

(『国文学 解釈と鑑賞』、特集 太宰治とその死生観、至文堂、2004)

있었을 것이나, 곧 다자이는 인간의 死生論에 대한 마음가짐과 생각을 새롭게 정리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우리들의 운명은 어떤 분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이른바 하늘의 뜻인 배에 아무런 주저 없이 가볍게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용기의 형식입니다.

もう僕たちの命は、或るお方にささげてしまつてゐたのです。僕たち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それゆゑ、僕たちは、その所謂天意の船に、何の躊躇も無く気軽に身をゆだねる事が出来るのです。これは新しい世紀の新しい勇氣の形式です。(『全集八巻』、p39)

성령에 의해 변화 받아 새로운 남자가 된 히바리는 운명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우리들의 운명은 어떤 분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의 ‘어떤 분’이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死生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용기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용기’라는 단어는 후기 작품인 「토카톤톤」(「トカトントン」)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참 사상은 지혜보다도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¹¹⁾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마태 10/28의 성구를 인용한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성서말씀대로 이루려면, 참 사상에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것이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고, 왜 두려워해야 하는가는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주관한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렵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겨야 하며 그 운명을 맡기는 것이 새로운 용기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새로운 세기의 참 사상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같이 『판도라의 상자』의 ‘새로운 용기의 형식’의 ‘용기’의 의미도 삶에 대한 의지를 가지려면 죽음에 대해 초연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활이나 삶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맡겨야 한다는 그리스도적 성향은 상당히 전도적인 성향이 짙다고 본다. 작품 속의 일부분으로 그러한 표현을 했다면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하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상에 관하여 논하면서 신과 성서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상에 나타나는 성서를 논하기 위해 우선 당시의 일반적인 당대의 정세

10) ‘小館へ嫁いでゐる私の姉が十日に死にました。’(『全集十一巻』、p289)

11) ‘眞の思想は、叡知よりも勇氣を必要とするもの’(『全集八巻』、p358)

에 대한 다자이의 거센 반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시의 균정치하에서 패전 후에 일변한 위선적인 사회와의 투쟁은 그의 그러한 현실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항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자이는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본인의 통상과는 반대로’, ‘태생이 반항성의 소유자’¹²⁾이기 때문이다.

11월 23일 이부세(井伏鱒二)에게, 12월 29일 야마시타(山下良三)에게, 다음 해인 1946년 1월 15일 이부세에게 보내는 서간을 차례대로 보도록 한다.

1.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어딴어. 인간의 욕심이 있는 한은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일본허무파라고 만들까요?
2. 신형편승의 경박한 문화가 쓰디쓰게 생각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심이 필요한데...
3. 요즘 잡지의 신형편승 쓰디쓰게 생각만 되고, 비슷하게라도 이런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 것 같아 핫술이나 마시고 싶답니다. 저는 무뢰파니까 그런 기풍에 반항해서 보수당에 가맹하여 -(中略)- 공산당 같은 것하고는 저는 정면으로 맞서 투쟁할 생각입니다. 일본만세라고 이제야 제정신으로 말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전 단순한 촌놈입니다. 약한 자 편을 듭니다. -(中略)- 일본의 문화라던가 하는 것을 이렇게 경박하게 갈궂게 한 것은 저놈들입니다. 저놈들이 생각하고 있는 「살롱문화」와 투쟁해야만 하나하고 생각해요. -(中略)- 보수파를 권합니다. 지금의 일본에서 보수의 태도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됩니다.

1. 共産主義も自由主義もへたくれもない、人間の欲張つてゐるうちは、世の中はよくなりつこありませんよ、日本虚無派といふのでも作りませうか。(p290)

2. 新型便乗の軽薄文化をニガニガしく思つてゐます。いま愛国心が必要なのにねえ。(p296)

3. このごろ雑誌の新型便乗ニガニガしき事かぎりなく、おほかたこんな事になるだらうと思つてゐましたが、あまりの事も、ヤケ酒でも飲みたくなります。私は無頼派ですから、この気風に反抗し、保守党に加盟し、 -(中略)- 共産党なんかとは私は真正面から戦ふつもりです。ニツポン万歳と今こそ本気に言つてやらうかと思つてゐます。私は單純な町奴です。弱いほうに味方するのはです。 -(中略)- 日本の文化とかいふものを、こんなに輕薄にキザにしたのは、あいつらです。あいつらの教えてゐる「サロン文化」と戦ふべきかと思ひます。 -(中略)- 保守党をおすすめします。いまの日本で、保守の態度が一ばん美しく思はれます。(pp299-300)¹³⁾

이상의 서간을 살펴보면, 정세에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 이 시기에 등장한 ‘신형편승주의’, 자유주의라는 탈을 쓴 ‘살롱문화’에 대해, 다자이는 무뢰파(無頼派)와 보수파로 정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정리할 수

12) ‘同一方向へ進みたがる日本人の通性とは反対に’, ‘生来の反抗性の持主’

(長部日出雄, 『桜桃とキリスト もう一つの太宰治伝』、文藝春秋、2002、p 306)

13) 『全集十一巻』

있다. 무뢰파라는 단어가 비로소 이 작품에서 등장한다.

무뢰파에 도달하기 위한 그 출발은 ‘자유’였다고 열 번째 편지인 ‘카타팡(固パン)’이라는 부제의 편지에 자세히 드러내고 있다. 진정한 ‘자유주의자’란 ‘無賴漢같은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본래의 모습은 반항정신’ ‘파괴정신이라 말해도 좋다.’¹⁴⁾ 이것이 자유사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압제나 속박이 제거된 곳에 비로소 싹트는 사상이 아니라, 압제나 속박의 반동으로서 그것과 동시에 발생하고 투쟁해야만 할 성질의 사상’¹⁵⁾이라고 한다. ‘투쟁의 대상이 없는 자유사상은 마치 그것이야말로 진공관 속에서 날갯짓하는 비둘기처럼 전혀 날 수 없다’¹⁶⁾고 정의 내리고 있다.

그러면 자유사상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유사상의 원래의 의미는 그리스도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라는 것은 진정 훌륭한 자유사상이 아닌가. 난 서양의 사상은 모두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中略)- 성서 한 권에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中略)- 일본사람은 서양의 철학 과학을 연구하기보다 먼저 성서 한 권의 연구를 해야만 했던 것이다. -(中略)- 자유사상이든 뭐든 그리스도의 정신을 모르면 반도 이해 못할 것이다.(p99)

2. 그리스도도 일체 맹세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라고도 말했다. 실로 자유사상가로서 대선배가 아닌가. 여우에게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p101)

1.自由思想の本来本元は、キリストだとさへ考へてゐる。思ひ煩ふな、空飛ぶ鳥を見よ、播かず、刈らず、蔵に収めず、なんてのは素晴らしい自由思想ぢやないか。わしは西洋の思想は、すべてキリストの精神を基底にして、-(中略)- 聖書一卷にむすびついてゐると思ふ。-(中略)- 日本人は、西洋の哲学、科学を研究するよりさきに、まづ聖書一卷の研究をしなければならぬ筈だつたのだ。-(中略)- 自由思想でも何でも、キリストの精神をしらなくては、半分も理解できない。(p99)

2.キリストもいつさい誓ふな、と言つてゐる。明日の事を思ふな、とも言つてゐる。実に、自由思想家の大先輩ではないか。狐には穴あり、鳥には巢あり、されど人の子には枕するところ無い。(p101)

자유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성구 4개가 인용되어 있고, 모두 마태복음이다. 순서대로 보면,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앓고 거두지도

14) 無賴漢みたいな生活をしてゐたのです。(『全集八巻』、p97)

その本来の姿は、反抗精神です。破壊思想といつていいかも知れない。(『全集八巻』、p98)

15) 圧制や束縛が取りのぞかれたところにはじめて芽生える思想ではなくて、圧制や束縛のリアクションとしてそれらと同時に発生し闘争すべき性質の思想です。(『全集八巻』、p98)

16) 闘争の対象の無い自由思想は、まるでそれこそ真空管の中ではばたいてゐる鳩のやうなもので、全く飛翔が出来ません。(『全集八巻』、p98)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마태6/25-26), ‘맹세하지 마라’(마태5/34),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마태6/34)’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 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8/20)’이다. 이 중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의 경우는 후에도 두 번 더 인용하고 있다. 이 성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실에 뒤따르는 생활의 염려에 대한 해방, 현실이라는 속박에서의 자유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사상의 기본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두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만큼 다자이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반드시 성서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리스도교의 전도성이 짙은 부분이다. 물론 이것은 다자이가 깨달은 생각이 아니었다.

다자이는 우치무라(內村鑑三)¹⁷⁾의 수상집을 통하여 성서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었지만, 이후에는 우치무라를 떠난 그의 제자인 츠카모토(塚本虎二)¹⁸⁾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 다자이의 부인 미치코(津島美知子)씨는 ‘다자이가 스스로 대금을 지불해서 정기구독자가 된 잡지는, 「성서지식」 뿐’¹⁹⁾이라고 할 만큼, 다자이는 잡지 「성서지식」을 집필한 츠카모토의 이론에 심취해 있었다.

그렇다면 츠카모토 이론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한다.

츠카모토는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고, ‘이십 몇 년 간의 전도는 이른바 그리스도교에 『일본』적인 것을 붙이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할 수 있다. 구미의 그리스도교는 구미에는 좋지만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의 그리스도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나의 전도의 근본이었다’

塚本は、自己の生涯を顧みて「二十幾年かの伝導は要するに基督教に『日本』的をつける為であつたとも言ひ得る。欧米の基督教は欧米にはよいが、日本人には日本人の基督教がなければならぬ、といふことを説くのが私の伝導の根本であつた。」(p179)²⁰⁾

츠카모토의 이론은 구미에서는 구미식 그리스도교가 있다면, 일본에는 일본식 그리스도교가 있어야 하며, 일본식 그리스도교를 전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한다. 이처럼 다자이는 츠카모토의 일본적 그리스도교에 매우 몰두해 있었으며, 일본은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성서 한권을 연구해야 한다는 말은,

17) 內村鑑三(1861-1930) : 日本の無教会主義の創始者である。

無教会主義 : 內村鑑三が創唱した日本独特のキリスト教。教會的な諸制度を認めず、聖書中心の福音主義的信仰に立つ。

18) 츠카모토(塚本虎二) : 츠카모토는 우치무라가 가장 신임하는 제자였는데, 그는 우치무라를 떠나 단독적인 전도활동을 하여, 우치무라를 능가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 ‘츠카모토가 발행한 잡지.’

‘太宰が進んで代金を支払って定期購読者になった雑誌は、『聖書知識』だけ’

(津島美智子、「回想の太宰治」、人文書院、1978、p159)

20) 「日本の基督教」「聖書知識」(田中良彦、「太宰治と『聖書知識』」、朝文社、1994)

츠카모토의 이론에 전적으로 동화되어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본적 그리스도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천황’을 동화시켜야 한다는 논의 나온다.

이를 논하기 위해 조금 더 자유사상에서 표현된 성구와 연결시켜서 살펴본다. 자유사상에 대한 뒷받침으로 ‘일본에 있어서 이제 와서 어제의 군벌관료를 공격한다 해서 그것은 이미 자유사상이 아니다. 편승사상이다. 참 자유사상자라면 ‘천황폐하만세’²¹⁾를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된다.(p101) ‘오늘날의 참 자유사상가는 이 부르짖음 아래에 죽어야 한다’(p101)고 한다. 이 ‘천황’이란 존재에 대해서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처음 언급되었는데, 다자이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이 일본의 풍토에 자라온 사이에 어느 샌가 키워온 오랜 꼬리’²²⁾이었을 수도 있고, ‘시대착오’²³⁾이며, ‘의외로 당시의 사람들의 심성을 받아들인 말’²⁴⁾이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구와 당시의 다자이의 생활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공중의 새와 심지어 거두지도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모든 생물과 땅의 소산물이라는 성서에 나타나는 자연에 그 자유사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당시 다자이가 카나기에서 귀농자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는 자급자족하는 욕심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성구에 집착 매료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과 접목시킨 자유사상에 대해서는 이 작품 다음에 발표된 「고뇌의 연감」(「苦悩の年鑑」)에서 표현한 ‘그 윤리의 본보기를 천황에 두고, 우리들의 생활은 자급자족의 아나키즘풍의 도원’²⁵⁾과 맥을 이어간다. 이에 대해 안도(安藤宏)는, ‘천황을 정점에 놓고 농본주의적인 아나키즘’은 ‘원래 그 같은 것이 현실에 성립될 리가 없다’²⁶⁾고 하지만, 다자이의 아나키즘 현실화의 가능불가능을 떠나 당시의 다자이의 이상인 일본의 그리스도교 수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포착할 수 있다. 다자이의 시각에서 본 천황의 모습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굴욕적이라도 패전을 선포하였기에 천황숭배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손에서 내려놓은 천황의 당시의 심경을 다자이는 ‘약한 자의 편을 든’ 것이다. 오랫동안 꾸준히 생각해 왔던 사상이 아니라, 패전을 계기로 생겨난 ‘다자이의 사상 수

21) 天皇陛下万歳! (『全集八卷』、p101)

22) 彼がこの日本の風土に育って来たうちについてのか培われていた古い尻尾です。(奥野健男、『太宰治論』、新潮文庫、1984、p139)

23) ‘아나키즘’ (磯貝英夫、再引用)

24) ‘案外当時の人々の心性を受けとめたころばであった。’(塚越和夫、鈴木貞美、再引用)

25) その倫理の儀表を天皇に置き、我等の生活は自給自足のアナキズム風の桃源である。(「苦悩の年鑑」、『全集八卷』、p254)

26) 天皇を頂点に戴く農本主義的なアナキズムもとよりそのようなものが現実になり立ちうるはずもない。(安藤宏、『太宰治 弱さを演じるということ』、ちくま新書、2002、p151)

용은 이론적이 아닌 직관적²⁷⁾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자이에게 있어서 ‘천황’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자유사상가의 대선배라고 하였고 일본은 성서를 연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자이는 천황을 내세웠다. 어째가 있는 듯이 보이지만, 다자이는 그리스도와 천황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자이에게 있어서의 ‘천황은 가장²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패전으로 인하여 고개 숙인 가장을 세상은 추궁하지만, 천황의 애처로움을 다자이는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호하고 위로해 주고 싶었고, 무능하고 무력하다 해도 ‘천황’이 가장의 자리를 지켜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일본의 아버지가 ‘천황’이라 생각하면, 그 ‘천황’에게 일본적 그리스도교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 나는 츠카모토 선생님을 폐하의 교사로 삼고 싶다는 공상을 하고 있어요.
2. 다자이는 츠카모토를 ‘폐하의 교사로 삼고 싶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1. 私は塚本先生を陛下の教師にしたいと空想してゐます。²⁹⁾
2. 太宰は、塚本を「陛下の教師にしたい」ほどの人物と高く評価していたのである。(p165)³⁰⁾

다자이는 성서세계에 있어서는 츠카모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츠카모토를 매우 존경하였을 것이고, 그의 일본적 그리스도교를 다자이의 이상형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의 생각을 바꿔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천황을 가르쳐야 하고, 천황의 교사가 될 적격자는 츠카모토라고 생각한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패전의 천황의 심경을 ‘욕심과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이 심경을 알 수 없’고,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버린 자의 평안³¹⁾인 바쇼의 이념인 <카루미>³²⁾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다자이가 생각하는 <카루미>도 생활의 염려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서’에 그 근본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에바(饗庭孝男)는, ‘「카루미」에는 성서의 영향을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

27) 太宰の思想の受容は、理論的でなく直観的であつた。

(赤司道雄、『太宰治 その心の遍歴と聖書』、八木書店、1985、p230)

28) ‘天皇は家長だつたですよ’(佐古純一郎、『太宰治の文学』、朝文社、1992、p265)

29) 1946년 5월 1일 키쿠타(菊田義孝)씨에게의 서간。(『全集十一卷』、p318)

30) 주 (20)의 책.

31) ‘慾と命を捨てなければ、この心境はわからない。’

‘すべてを失ひ、すべてを捨てた者の平安こそ、その「かるみ」だ。’(『全集八卷』、p127)

32) 主に人事に取材して、俗を離れ、俗の中から新しい詩經一寂の境地—を求め、再び俗に帰った境地(『大修館国語要覧』、大修館書店、1998)

는 것이 있다. 소유물의 방기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이것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사상이 거기에 내실화되어 있다³³⁾라고 하는 것처럼, 다자이에게 있어서 천황의 문제와 카루미의 문제와 자유사상에 관한 문제는, 모두 성서의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판도라의 상자』는, 패전직후의 다자이에게 보이는 천황관이나 자유사상 등의 제반문제를 성서에 접목시키고 있고, 속세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성서」라는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4. 결론

『판도라의 상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이 작품은 ‘희망’이 담긴 ‘중기의 밝음’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패전직후라는 중요한 시대상의 산물이다. 특히 무뢰파 선언을 한 첫 작품이며, 자유사상을 부르짖는 등의 그의 유토피아적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짧게 네 군데에서 인용되고 있는 성구를 통하여 나타낸 자연은 바쇼의 <카루미>로 맥을 이어갔으며, 중기와 말기의 분기점에 있는 이 작품을 통하여, 다자이의 자연의 개념이 성서를 통하여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 자유사상의 근본원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에 둔다는 일본의 그리스도교수용을 위해 천황과 바쇼의 <카루미>까지도 접목시키는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교의 전도사와도 같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었다.

후에 그는 ‘그 윤리의 본보기를 천황에 두고, 우리들의 생활은 자급자족의 아나키즘풍의 도원이다’³⁴⁾라는 이상을 꿈꾼다. 비록 그러한 이상세계에 대한 구체성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이상세계에 대한 그의 갈망은 성서를 통하여 이 작품에 그리고자 한 것처럼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다자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은 성서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다자이 문학에서의 성서의 위치는 매우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33) 「かるみ」には聖書からの影響を抜きにしては考えられないものがある。所有の放棄と、おのれの命を捨てんと欲するものは、かえってこれを得る、というキリスト教の思想がそこに内実化されている。(笠井秋生、「太宰治と聖書」、-マタイ伝六章(二五節~三四節)との関わりを中心に-、p217、재인용) 山内祥史 外3人、『二十世紀旗手・太宰治-その恍惚と不安と-』、和泉書院、2005.

34) その倫理の儀表を天皇に置き、我等の生活は自給自足のアナキズム風の桃源である。(「苦悩の年鑑」、『全集八巻』、p254)

알 수 있다

『판도라의 상자』로 다자이 문학의 시기는 완전히 말기로 들어간다. ‘시대가 변했다’³⁵⁾고 하듯이, 패전을 맞이한 지옥 같은 세계에서 그의 예술창작은 더욱 꽃을 피운다. 전시라는 중기시기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불안하고 혼돈된 시기와는 달리 밝은 작품을 발표하였듯이 말기에 들어서서도 『사양』이나 『인간실격』 등 좋은 작품을 계속해서 발표했다.

다자이의 작품에는 성구가 인용된 작품이 40여개 정도 있으며, 성구가 아닌 신을 논한 작품을 포함한다면 상당수에 달한다. 이러한 작품은 특히 전시라는 중기시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는 다자이의 예술지상의 의미도 있겠으나, 그에게 신앙이 있지 않았다면 한 두 작품도 아니고 다수의 작품에 성구를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신앙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그의 인간적 현실의 삶이었던 부도덕 반항 자살 등 이해할 수 없는 거부감으로 그의 성서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 속의 성구인용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함인지, 다자이의 본질적 성서사랑인지, 그 경계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단 그가 추구하는 성서강독의 세계와 그 열정은 독자들과 성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 자살 전까지도 작품에서 성서를 의지했을 만큼 그 어떤 작가들보다 성서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작가였다고 생각한다.

35) ‘時代が變つたよ’(『全集八卷』、p122)

【参考文献】

- 『太宰治全集 筑摩全集類聚』、筑摩書房、1986.
『聖書 新改訳』、1973.
『聖書 NKJV』、2003.
「大修館国語要覧」、大修館書店、1998.
太宰治、『新潮日本文学アルバム 19』、新潮社、1983.
東郷克美・渡部芳紀、『作品論 太宰治』、双文社出版、1979.
奥野健男、「太宰治論」、新潮文庫、1984.
奥野健男、解説「パンドラの匣」、新潮文庫、1973.
渡部芳紀、「パンドラの匣を中心に」
(『国文学 解釈と鑑賞』、特集 太宰治とその死生観、至文堂、2004)
安藤宏、『太宰治 弱さを演じるということ』、ちくま新書、2002.
赤司道雄、『太宰治 その心の遍歴と聖書』、八木書店、1985.
佐古純一郎、『太宰治の文学』、朝文社、1992.
田中良彦、『太宰治と「聖書知識」』、朝文社、1994.
津島美智子、「回想の太宰治」、人文書院、1978.
長部日出雄、『桜桃とキリスト もう一つの太宰治伝』、文芸春秋、2002、p 306.

要 旨

太宰治の『パンドラの匣』は、太平洋戦争の日本の敗戦直後、混乱の時代に完成発表された新聞小説である。敗戦をきっかけに、旧時代や死に背を向け、新時代に向かった新しい生き方を目指した希望に満ちた作品である。

そういった希望への志は自己嫌悪や悔恨ばかりを感じてきた過去の自分でなく、それとは全く反対の現在の新しい男である自分になったことの喜びであり、新しい男になるためには自分の運命をキリストにまかせる新しい世紀の新しい勇気を持つことであった。聖書のことばを引用して、日本は聖書一卷の研究をしなければならぬ、キリストの精神を知らなくては自由思想なんかは半分も理解できないという。その自由思想とは、聖句である「思ひ煩ふな、空飛ぶ鳥を見よ、播かず、刈らず、蔵に収めず、いつさい誓ふな、明日の事を思ふな、狐には穴あり、鳥には巢あり、されど人の子には枕するところ無い」などを例えて「自給自足のアナキズムの桃源」を夢見る。そのためには敗戦で無力無能になった天皇に日本的キリスト教を教えるべきであった。これはまた、「慾と命を捨てなければ、この心境はわからない」「すべてを失ひ、すべてを捨てた者の平安」である芭蕉の〈かかるみ〉と結び付けている。

謂わば自由思想という太宰の生の自然観は、つまり天皇への愛情も自由思想も芭蕉の〈かかるみ〉も、すべてが聖書を中心として成り立っていることを語っている。これくらい聖書と人間生活とをむすびつけていることをみると、『パンドラの匣』はよほどキリスト教への伝道師のような気もなくなるのではないか。

太宰は全期にかけて作品に聖書を引用してきた。彼は最後まで聖書に頼っていたし、聖書に充実しようと努力する様子は止めなかった作家であった。

キーワード：聖書、自由思想、天皇、無頼派、かかるみ、伝道師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436-1 현대아파트 20-109
電 話 : 02-3471-3357, 010-8411-3463
e-mail : jeonhidemi@hanmail.net